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최규수*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기
- III. 텍스트-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기
- IV. 나오며

<국문초록>

고전시가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 다른 장르에 비해 다양한 세부 전공과 호한한 범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아마도 시간 대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모색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교육에 대한 담론의 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고전시가 교육이 다루어야 할 시대범위가 방대하고 세부 장르론이 매우 다양할 뿐더러 이해의 두 방향을 필수항으로 삼는다 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교수방법상의 특이점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당장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키워드(keyword)'를 주목하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면 교육방법과 교재 선정, 평가 방식 등과 같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의 기본방향은 시가교육 현장에서 전제로 삼을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왕의 시가교육에 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삼을 수 있기를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로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드는 이유는,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클수록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교육하려는 자기-중심적 해석의 양상이 과열화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 취향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또한 다채로운 만큼 이런 측면의 공과(功過)를 따져 묻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 이해로 다름 아닌 '고전시가(古典詩歌)' 개념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 현장에서 보다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전제로 강조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두 번째 키워드로 텍스트-중심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고전시가의 텍스트 해석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교육의 실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것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전시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상황'의 검토와 제대로 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시 창작과 향수 방식이 다른 만큼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미적 패러다임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텍스트의 소통체계에 대한 이해가 시가교육 현장의 중요한 키워드로 나서야 된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에, 고전시가 교육에서 '텍스트 상황'의 복원 작업은 고전시가의 언어미학적 자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당대적 가치관과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전시가의 창작과 향수 상황에서 미적 가치와 정서의 관독은 시가 작품의 평면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현재와 다른 당대적 상황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작품 당대적 상황의 복원 작업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시가교육, 자기-중심적 틀, 자기-중심적 해석, 고전시가(古典詩歌), 텍스트-중심적 틀, 텍스트 상황, 미적 패러다임

I. 들어가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크다 하여 반드시 성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시가를 교육하는 기회라는 것이 훨씬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적이기까지 한 상황에서 오늘의 기획주제가 수월하지 않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표의 자리를 굳이 물리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가 연구자가 처한 자리이기도 하고, 연구와 교육의 이런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이 차라리 시가교육 논의의 실질성을 논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가 '교육자'로 나설 기회가 충분치 않다 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덜하거나, 치열한 고민이나 진지한 모색이 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연구'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탐구적 차원의 활동이라면, '교육'은 사고와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차원의 활동¹⁾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는 행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전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²⁾ 이해와 교육, 또는 연구와 교육의 상관성을 따진다면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 하여 언제까지고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유보하기만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가 교육적 논의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영성한 것을 안다면,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에서 어떠한 담론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훨씬 흥미로울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전시가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자명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적 실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쉽게 짐작된다.

1)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론 서설」, 『백록어문』 15집(백록어문학회, 1999), 110면.

2) 김인환, 『문학교육론』(평민서당, 1979).

이를 위해 대부분의 개론서에서 설명되는 고전시가의 정의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고전시가는 ① 상고시대부터 19세기말까지 ② 우리 민족이 만들고 불렀던 노래 문학 중에서 문자로 기록한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고전시가에 대한 논의는 이 작품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중심인데, ③ 논의 대상작품은 상대 시가, 삼국시대 시가, 향가 등의 통일신라시대 시가, 속요와 경기체가 등의 고려시대 시가, 악장·시조·가사 등의 조선시대 시가, 잡가 등이다.

이처럼 복잡한 양상을 그리는 고전시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역사적·전통적 흐름과 발전이라는 ④ 시가사적 전개이고, 다른 하나는 각 시대의 작품이 갖는 문학적 예술상에 대한 ⑤ 비평론적 전개가 그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가는 언어예술의 중심을 이루면서 ⑥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⑦ 작품을 만들고 즐기는 형성층과 향유층의 문화적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역사가 오랜 시가에는 ⑧ 전통의 계승과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마련으로, ⑨ 민족시가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³⁾

위의 정의에서부터 익히 짐작되는 바와 같이, 고전시가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은 크게 개론적 이해,⁴⁾ 시가사,⁵⁾ 작품론 혹은 작품 강독,⁶⁾ 세부 장르론⁷⁾ 등으로 나눌 수 있고,⁸⁾ 대학별 사정에 맞게 한 학기에 하나

3) 성기욱·손종흠, 『고전시가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4) 한국고전문학의 이해/한국문학의 세계 등의 제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5) 고전문학사/고전시가사(또는 한국고전시가문학사) 등의 제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6) 고전시가강독/고전시가작품론 등의 제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7) 고대시가론/향가론/속요론(또는 향가속요론)/시조론/가사론(또는 시조가사론) 등의 제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혹은 두 강좌 정도가 선택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내용의 범위가 호한한 만큼 그 막막함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아마도 시간 대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모색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교육에 대한 담론의 장⁹⁾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대학별 상황에 맞게 개설되는 시가 교과목의 다양성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고전시가 교육이 다루어야 할 시대범위가 방대하고 ① 세부 장르론이 매우 다양할 뿐더러 ③ 이해의 두 방향 ④⑤을 필수항으로 삼는다 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교수방법상의 특이점 ②⑥⑦⑧⑨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족문화적 가치와 의의가 보다 강조되거나, 교수자의 개인적 취향이라는 것이 가미되면 시가교육에서의 교집합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당장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키워드(keyword)'를 주목하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면 교육방법과 교재 선정, 평가 방식 등과 같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겠지만, 시가교육의 담론을 묶어낼 공통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야를 보다 크게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기본 방향은 시가교육 현장에서 전제로 삼을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왕의 시가교육에 대한 반성을

8) 물론, 고전시가론1/고전시가론2 등의 개괄적 명칭을 쓰거나 보다 세부적으로 시가율격론/작가론/연구방법론 등을 붙이는 경우도 가능하다.

9) 김대행, 『국어 교과학의 지평』(서울대 출판부, 1995); 권오경, 『고전시가 작품교육론』(월인, 1999);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월인, 2000);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1); 김풍기,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월인, 2002).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II.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기

1. 자기-중심적 교육의 양상과 문제점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로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드는 이유는,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클수록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교육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품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취향의 개입이 클수록, 그리고 시간적 격차에서 빚어지는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할수록 자기-중심적 해석의 양상은 과열화 되게 마련이다.

물론, 개인적 취향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또한 다채로운 만큼 이런 측면의 공과(功過)를 따져 묻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현장의 이런 사례들에서 당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만큼은 반성이 필요할 듯싶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재적' 입장에서 우리의 감수성이나 정서에 맞게 재단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시 중심의 파행적 교육의 폐해가 심한 한국적 상황에서 교육적 목표와 의도가 강한 만큼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자기-중심적 교육의 폐해는 의외로 크다.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첫째, 교육내용의 범위와 작품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 선택과 무절제한 발췌의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전시가 연구가

주로 문학사적 시각에 입각한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비평적 해석 역시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나, 개별 작품의 유적 집합으로서의 장르론이 개별 작품에 대한 비평을 압도하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도 문학 작품의 섬세한 독해를 바탕으로 한 다기보다 주로 역사적 변동이나 이념에 얼마나 적절하게 조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쉬웠던 측면이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¹⁰⁾

물론 이러한 문제 지적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시가사의 전개가 시적 전통의 지속과 변모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의 다양한 문화현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띠기에 그것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문학적 예술성에 대한 비평론적 전개의 측면에서도 작품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각각의 갈래가 지닌 특수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다양한 이론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기에, 문제는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는 고전시가 교육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 상황의 불가피성을 납득하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고전시가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보다는 향가나 시조와 같은 특정 양식 자체가 부각되고 장르의 출현과 변동에 더 큰 관심과 주목을 쏟게 되는 교육의 현실¹¹⁾은 고전시가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시가의 영역에서 중심과 주변의 무게가 나눌 수밖에 없고,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중심과 주변의 무게를 통해 다시 선택되는 순환의 고리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의

10) 최규수, 고시가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적 전망, 『한민족어문학』 33집(한민족어문학회, 2001).

11) 류준필, 한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통과 이념, 한국고전문학회 99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발표요지.

자의적 선택과 무절제한 발췌의 의존이 지나치지 않도록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전시가 교육의 현재적 가치를 민족시가로서의 교육적 가치에만 집중시키는 중압감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전 교육은 국어문화의 전수나 애호정신의 함양과 민족문화의 창조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단원 설정이나 제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늘 교육적 효과를 중심과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시가교육에 있어서도 당위론적 명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일관성 없는 단편적 단원 설정이나 무배려한 제재 선택’이 오히려 정서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인품이나 인격 형성에 역효과를 주는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¹²⁾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중압감이 오히려 시조교육 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시조 연구와 별개로 그간의 시조 교육이 ‘시조’에 강세를 주어 우리 문학사에 존재하여온 특정 시가 장르로서의 시조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을 부각하거나 ‘교육’에 강세를 주어 시조의 교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일정한 교육적 목표를 부각시키는 두 가지 틀을 근간으로 하여온 경향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크다. 시조교육에 부여된 중압감이 시조교육 논의를 활성화시켜 시조의 문학적 지평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는 데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세우고 보다 다양한 교수 방법을 고안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조 교육이 근대 교육 출발에서부터 중요한 고전문학 교육의 한 부분이었음을 상기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문학 위기에 시조 교육이

12) 김동준, 고전시가 교육 이대로 좋은가-특히 시조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문제연구』 3집(동국대 교육문제연구소, 1985).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여, 시조 연구자로서의 반성적인 입장을 거듭 촉구한 논의들도 있다.¹³⁾ 중요한 것은 시조교육 논의에서 이른바 '민족시·우리 것·애국심' 등 명목적 가치의 집중적 설명을 통해 시가 전통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유도했던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작품에 대한 선별 기준의 상투성 혹은 자의성이 최근의 문화적 양상에서는 소재적 차원의 변용 내지 접합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빛어지는 자기중심적 태도 역시 교육현장에서는 반성적으로 고찰할 국면이라는 점이다. 일부 작품들이 연극이나 영화·드라마, 혹은 만화나 개그로 재생산되는 상황에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문학-고전시가의 체계에서 파악되는 고전시가 교육이 한낱 개념적인 우리 선인들의 문학유산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고전이 우리 현실 앞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현대문학에 접합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단선적으로 고전문학 연구의 결과를 현대의 대중매체에 직결시킬 수 있어야만 고전문학의 현대적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작품의 텍스트 변용을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텍스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상'을 포착하는 일을 생략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따라서 작품의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전시가의 교육적 효과를 따지는 데 중요한 질문이 된다. 고전시가 교육이 단순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작품 어휘의 주석적 설명으로 끝나는 과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학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문학의 감상력과 상상력

13) 허왕욱,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시조학논총』 17집(한국시조학회, 2001), 211-212면; 김선배, 『시조문학교육의 통시적 연구』(박이정, 1998); 정기철, 시조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활동유형, 『시조학논총』 16집(한국시조학회, 2000), 217-218면.

증진을 뛰어넘어 ‘삶의 총체적 체험’과 ‘문학적 문화의 고양’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⁴⁾ 이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함도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가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반성적 과제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 내지 접근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고전시가’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한 이유

시가교육에서 시간적 거리의 격차에서 오는 언어적·형식적 이질감이 나 문화적·정서적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현재의 교육적 상황을 돌아볼 때, 현대시 교육의 현장에서와 달리 고전시가 교육에서 선행해야 하는 몇 단계의 작업조차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번거로운 절차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다. 학생들의 고충을 생각한다고 고전문학 이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작품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둔 비평적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반응을 무시한 채 장르의 기원·발생·형식적 특징·표현상의 관습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 더구나 암기된 지식과 정보의 중압감에 이미 질려버린 학생들의 시큰둥한 반응과 맞물리면 교육자의 의욕이라는 것도 자칫 자기만족적이 되거나 현학적인 취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도 저도 손쉽게 처방할 수 없는 고충이란 정도 이

1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1988).

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전문학 교육을 메마른 고등학교 지식주의 압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고전문학의 역사성이 학습자의 문학 이해와 성장에 의미 있는 요소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는 문제의식은, 그래서 고전시가 작품에 대한 '화석화'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주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교육 현장에서 문학 교육의 위상과 방법적 한계를 점검하는 담론이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시가 연구와 시가 교육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가 연구가 수요자의 입장을 철저히 고려한 시가 교육의 차원으로까지 입지를 넓혀야 된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히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품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점차 그 문학이 생성된 시기의 사회구조, 생활양식, 세계관, 가치관 문학적 관습을 설명하는 단계로 나아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그리고 향가나 시조, 가사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가보다는 그 양식들과 현재의 독자들 사이에 놓인 관습과 기대의 격차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육방법적 실천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시가교육 논의들에서 귀납적 사례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고, 앞서 살핀바 자기-중심적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적 성과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 이해를 촉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다음 아닌

15) 김홍규, 「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 비평과 이론』 3호(한신문화사, 1992).

‘고전시가(古典詩歌)’ 개념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 현장에서 보다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먼저 ‘고전(古典)’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래 ‘고전’이라는 용어의 시간적 개념은, 언제나 ‘현대’와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 고전소설 대 현대소설, 고전시 대 현대시에서처럼 ‘오늘날’과 쌍관향을 이루는 ‘옛날’이라는 시간 개념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다. 반면 ‘고전’의 가치적 개념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이라는 정의¹⁶⁾에서 보듯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그리고 흔히 ‘고전’이라 칭할 때는 ‘좋은 작품’을 의미하는 가치 개념이 시간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입된다.¹⁷⁾

하지만 우리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고전시가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이 문자로 정착되기까지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고, 정착의 양상이라는 것 또한 다기했던 만큼 시간적 거리의 격차에서 오는 언어적·형식적 이질감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당연히 ‘고전시가’의 개념적 정의상 ‘노래로 불린 것 중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교육대상으로 삼음에도, 문자로 정착되기까지의 창작과 전승 과정을 유연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전시가의 문학 유산을 검토하면, 한문문학/국문문학의 관련성, 문자매체와 비문자매체의 대립적 구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문어문학과 구어문학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대목에서 풍부한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

16)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다.

17) 이창식, 「고전시가 교육의 실상과 전망」, 『동국어문학』 8집(동국대 국어교육과, 1996), 141-142면.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의 옛 시가문학 작품들이 모두 고전의 원래 뜻에 걸맞는 훌륭한 작품도 아니며, 이들 작품 가운데 훌륭한 작품들만을 선택적으로 분별하여 고전시가라 칭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

따라서 '고전시가'의 '고전'적 함의에 선인들이 남긴 작품이면 문학적 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것이나 모두 소중한 작품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옛 문학이 처한 현실적 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만큼,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시가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사(詩歌史)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상상 혹은 추론조차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를 얼마나,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는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가(詩歌)'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중요하다.

고전시가의 '시가'에는 기본적으로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가' 시적 리듬이 주동적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를 총칭하여 일컫는 일반적 용어라면, '시가'는 이들 가운데 일부 특정 텍스트만을 지칭하는 특수한 용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가'는 '시(詩)'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시'를 '시가'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한 듯 보이는 '시가'에 대해서도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의외의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시가'의 개념적 정의를 충실히 따르자면, 현대시나 한시와 달리, 우리의 옛 국문시 작품들은 거의 언제나 노래로 부르기 위해 창작되고 노래로 불리면서 향유되어 왔다는 점을 '시가'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강조할 수가 있고, 당연히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전시'라고 해도 좋을 것을 굳이 '고전시가'라 지칭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따라서 시가교육의 현

장에서는 ‘시이면서 노래’인 고전시가의 이러한 측면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도록 현대시 교육에서와는 다른 교수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전시가에 담긴 ‘고전’과 ‘시가’의 뜻 모두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고전시가’의 개념적 이해가 얼마나 어떻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망각하기 쉬운 전제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착각하기도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 틀로부터 벗어나는 시가교육의 첫 번째 해결책으로 ‘고전시가’ 개념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Ⅲ. 텍스트-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기

1. 텍스트-중심적 교육의 양상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두 번째 키워드로 텍스트-중심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고전시가의 텍스트 해석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교육의 실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것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가교육 논의의 현장적 발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ㄱ)

① 시 교육은 말과 글에 의한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점, 시는 이해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라는 점이다.

② 특히 고전시가는 학습자가 느끼는 과정에서, 시대적 간격이 미치는 여

러 가지 장애요인들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곧 학습 자료를 정선해야 하고, 원전을 확정해야 하고, 낱말과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모든 작품을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 편자와 지도자의 심도 있고도 광범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 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시가 교육의 기본 방향은 고전시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붙잡는 힘과,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기르는 힘을 육성하는 데 두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힘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¹⁸⁾

(L)

대학생들에게 시나 소설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면 우선 당황해 한다. 고교 시절 지침서나 참고서의 정답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외웠기 때문에 감상할 줄 모른다. 구조주의나 형식주의의 찢어발기기 식의 감상만 해왔으니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나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기 겁낸다……

특히 고전시가 작품들은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분야로, 작품 해석을 들으며 권태로움에 빠진다. 문학의 미적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 서구식의 감정어입이 잘 된 문학을 전범으로 삼다보니 감정을 억제한 작품은 왠지 어색하게 느낀다.¹⁹⁾

(ㄱ)에서 제시한바 ①이나 ③, 그리고 ②조차도 상당히 추상화된 곤혹스러움을 주는 이유는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한 곤혹스러움은 특히 교육현장의 소회를 그대로 옮겨온 (L)에서 보다시피, 고전시가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또

18) 임기중,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상고에서 고려조까지-, 『교육문제연구』 3집(동국대 교육문제연구소, 1985), 52-53면.

19) 허남춘, 고전시가 교육의 이념과 방향, 『백록어문』 17집(백록어문학회, 2001), 146면.

는 인식과 맞물릴 때 더욱 심해진다.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수업 모형의 개발과 교육적 텍스트의 선정은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론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교육적 관심에서의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작품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²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즉 어떤 고전시가 작품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교육의 대상이 된 작품의 교육적 가치는 어떤 것이며, 이에 학습자가 가장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상작품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 혹은 실용적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들이 각 작품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동향에서 짐작되듯이 특정한 작품에 국한하여 교육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읽고 감상할 수 있는 고전시가 작품의 목록을 확보하여 작품에 대한 다양한 독법(讀法)과 이해가 다각도에서 시험되는 양상 역시 충분히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전시가의 안빈낙도 사상이 표상하는 동양의 인문적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²¹⁾이나, 고전문학의 글쓰기에서 생태학적 사유를 탐색하려 한 작업²²⁾에서 보듯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현재의 포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보다 호소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런 대안적 모색들에서 경계해야 할 지점을 짚어보는 작업 또한

20)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1).

21) 이동환, 좌담: 문명의 전환과 국문학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10집(민족문화사연구소, 1997).

22)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42호(녹색평론사, 1998).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텍스트-중심적 교육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고전시가를 기피하는 학생들의 인상적인 평가로 가장 흔한 것이 작품의 평면성 혹은 상투성인 만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시해석의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하게 될 경우, 이런 집중이 텍스트-중심적 교육의 폐해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런 집중은 고전시가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감상에만 주력할수록, 그리고 대중화의 가치를 높이 드는 저술일수록, 어석(語釋)이나 연구사적인 이해보다는 현대시에 접근하듯 이미지나 상징, 화자의 정서 등의 파악에만 집중하여 '시(詩)'로서의 이해를 우선하는 경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술의 체계성이나 논리적 엄정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이런 독법이 고전시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소득이 있음을 인정한다. 특히 감성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방식이 지닌 긍정적인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걸음 가깝게 해주려는 의도가 자칫 텍스트-중심적 교육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한계를 지님을 지적해야 한다.

현대시의 독법(讀法)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시 텍스트라는 공통점을 들어 현대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노래로 부르기 위해 창작된 고전시가의 독법과는 것이 활자로 읽기 위해 창작된 현대시의 독법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적 전통을 잇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생성과 향유의 메커니즘이 현대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고전시가의 시학적(혹은 미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²³⁾

다음으로, 고전시가의 작품 해석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고전시가의 독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곧, 1) 텍스트에 관한 서지적 이해→ 2) 텍스트 언어의 해독→ 3) 장르적 관습의 이해→ 4) 작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 창작 환경 및 작자에 대한 이해→ 5) 작품에 대한 느낌 혹은 심리적 반응의 형성→ 6) 작품 해석→ 7) 작품에 대한 소감·평가 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친다고 해도, 학생들의 미적 체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들 단계를 입체화시킬 복안이 없다면 시가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문학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해내는 역사적 복원의 중요성과 역사주의적 접근법을 어떻게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시가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안목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 항에 살필 ‘텍스트 상황’의 복원 작업이 갖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2. ‘텍스트 상황’의 복원 작업이 갖는 의미

앞서 텍스트-중심적 교육의 우려할 만한 지점을 살피면서 고전시가의 텍스트를 읽는 독법이 현대시와 다름을 언급하였다. 부연하자면, 시인과 독자의 거리가 단절되어 인쇄된 텍스트로서만 소통되는 현대시의 경우에는 해석의 정보라는 것이 거의 모두 ‘텍스트text’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반면, 고전시가에서는 작품 해석의 정보라는 것이 ‘텍스트’에만 담겨있지 않고 독자와 공유하는 ‘텍스트 상황context’에도 나누어 담겨진다는 사실이다.

23) 성기욱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소명출판, 2003).

이 때, '텍스트 상황'이라는 용어는 흔히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에 동원되는 몇 단계의 선행 작업을 묶는 것이자, 보다 포괄적으로는 '작품 창작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시인과 독자가 공유하는 '텍스트 상황'이라는 것은 현대시와 변별되는 고전시가 특유의 소통방식이 된다. 따라서 고전시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상황'의 검토와 제대로 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시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미적 패러다임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텍스트의 소통체계에 대한 이해가 시가교육 현장의 중요한 키워드로 나서야 된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이 항에서는 고전시가 교육에서 '텍스트 상황'의 의미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 하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 상황'의 복원 작업은 고전시가의 언어미학적 자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고전시가'의 개념적 이해를 통해 강조한 것처럼, 텍스트 해석의 방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노래'로 불리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전제이다. 이는 고전시가가 노래로 불리기 위해 창작된 연행 예술적 성격이 강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고전시가의 언어는 이렇게 노래를 짓고 즐기는 향유 상황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완성되게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창작 상황과 단절된 향유 메커니즘 때문에 모든 것을 언어로 담아내야 하는 현대시의 경우 시인과 독자의 의미 전달 통로가 텍스트의 '언어' 하나밖에 없기에 비유나 상징 등의 모든 표현장치를 언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언어'와 '상황' 모두가 시창작과 해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현대시가 개인

의 내밀한 공간에서 스스로 의미를 캐어가야 하는 언어의 사유성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언어가 노래되는 ‘연행(혹은 향수) 상황’에서 그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향성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가교육의 현장에서는, 현대시의 언어가 훨씬 세련되고 입체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고전시가의 언어라는 것이 그저 밋밋하고 단조롭고 상투적이며 기계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 다른 말로 하자면 시언어의 미학적 차이를 만들게 한 문화적 배경으로서 ‘부르기’와 ‘읽기’라는 연행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경험시킬 연결고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

고로 가집 전승의 맥락, 작품 유포의 범위, 대상 자료의 수용사적 시각 등 작품 이해의 키워드가 될 요소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묵독(默讀)이 아닌 낭독(朗讀)의 경험, 또는 가창(歌唱) 실연(實演)의 구체적인 연창 방식에 대한 지식 등 창작 상황을 복원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훌륭한 시가교육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절차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다각도로 체험하게 하는 시간적 투자가 대학생 대상의 시가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작품의 평면적 이해와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풍요로운 작품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고전시가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욕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당대적 가치관과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전시가의 창작과 향수 상황에서 미적 가치와 정서의 판독은 시가 작품의 평면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인과 독자가 공유하는 ‘텍스트 상황’이 고전시가에서 중요한 미학적

자질인 만큼 고전시가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현대사에서 추구하는 그것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래된 세계의 깊이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창조적 가치가 아니라 규범적 가치가 고전시가에서 추구하는 제일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당대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유효한 전제가 된다.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것, 신기한 것보다는 만인에게 친숙한 것이 오히려 고전시가의 미학적 덕목이 되는 만큼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현재와 다른 당대적 상황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작품 당대적 상황의 복원 작업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의 한 시기를 당대의 관점으로 이해한 연후에야 대상작품의 향유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제시된 결론은 현재의 문학 양상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⁴⁾ 이것이 야말로 대학생을 위한 시가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는 그저 밋밋하게만 보일 뿐인 범작(凡作)을 몇 겹의 해석 과정으로 비범(非凡)하게 다루어내어 그들의 오감(五感)을 자극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IV. 나오며

고전 시가가 좋아 연구에 몰두하는 즐거움이 큰 만큼, 연구 성과를 강의 현장에 가져올 때 부딪치는 어려움도 크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다.²⁵⁾

24) 박경주, 고전문학 교육의 연구현황과 전망-시가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집(청관고전문학회, 1999), 27면.

25) 최규수, 문학사 교육에서 가람 시조 논의의 사적 맥락과 위상, 『열상고전연구』 19집(열상고전연구회, 2004).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어려움은 솔직히 여전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여전함 때문에 고전시가 교육의 전망이 비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이 클수록 갈등과 모색은 더욱 치열하고 진지해지는바, 교육자로서의 의욕이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여, 이제껏 산만하게 이어온 논의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시가 교육의 현장에서 스스로 다짐하는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는 것으로 결론 아닌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고전문학이 죽은 말로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화의 현존을 밝혀주는 관습으로 작용함은, 마치 조상의 유물들이 단지 골동품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의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점이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연결지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본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사실을 그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유익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단지 과거로만 존재한다면 과거를 대상으로 체계를 외우고 의미를 따지는 어려운 일을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동시적인 비평적 성찰²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짐을 얻어가는 것처럼 갈 길이 멀게 느껴짐에도 여전히 의욕을 다질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고 싶다.

26) 김종철, 「한국고전문학사의 시각」, 『한국고전문학입문』(집문당, 1996), 30-40면.

참고문헌

- 권오경, 『고전 시가 작품 교육론』(월인, 1999), 13-39면.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1988), 22-40면.
- 김대행, 『국어 교과학의 지평』(서울대 출판부 1995), 3-388면.
- 김동준, 「고전시가 교육 이대로 좋은가-특히 시조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문제연구』 3집(동국대 교육문제연구소, 1985), 68면.
- 김선배, 『시조문학교육의 통시적 연구』(박이정, 1998), 2-268면.
- 김인환, 『문학교육론』(평민서당, 1979), 27면.
- 김종철, 「한국고전문학사의 시각」, 『한국고전문학입문』(집문당, 1996), 30-40면.
- 김풍기, 『한국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월인, 2002), 2-188면.
- 김홍규, 「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 비평과 이론』 3호(한신문화사, 1992), 36면.
- 박경주, 「고전문학 교육의 연구현황과 전망-시가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집(청관고전문학회, 1999), 27면.
-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42호(녹색평론사, 1998).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돌베개, 1999).
- 성기옥·손종흠, 『고전시가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12-78면.
-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소명출판, 2003), 15-115면.
- 이동환, 좌담: 문명의 전환과 국문학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0집(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32면.
- 이창식, 「고전시가 교육의 실상과 전망」, 『동국어문학』 8집(동국대 국어교육과, 1996), 141-142면.
- 임기중,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상고에서 고려조까지-, 『교육문제연구』 3집(동국대 교육문제연구소, 1985), 52-53면.
- 정기철, 「시조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활동 유형」, 『시조학논총』 16집(한국시조학회, 2000), 217-218면.
- 최규수, 「고시가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적 전망」, 『한민족어문학』 38집(한민족어문학회, 2001), 61-76면.
- 최규수, 「문학사 교육에서 가람 시조 논의의 사적 맥락과 위상」, 『열상고전연구』 19집(열상고전연구회, 2004), 149-172면.

- 최규수, 『고전시가 연구의 전망과 모색』(다운샘, 2007), 10-301면.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론 서설」, 『백록어문』 15집(백록어문학회, 1999), 110면.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월인, 2000), 79-126면.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1), 161-189면.
허남춘, 「고전시가 교육의 이념과 방향」, 『백록어문』 17집(백록어문학회, 2001), 146면.
허왕욱,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시조학논총』 17집(한국시조학회, 2001), 211-212면.

ABSTRACT

Several Keywords of Classical Shiga 'Education' for Collegians

Choi, Kyu-Soo

Whereas 'Study' is an exploratory activity for truth, 'Teaching' is an practical activity seeking positive change of thought and action. In that aspect, the subject that how we teach in the college, the academic community, with what kinds of discussion and which methods are valuable and interesting.

Because the sphere of classical Shiga education covers various detailed major and vast range, the teachers may take pains over seeking the way to raise the efficiency of teaching compared to time poured. At the least, the reason of inert on the discussion for the Shiga education is because the era range that the Classical Shiga teaching should cover is too extensive, detailed categorization is very various and the peculiarity in the teaching methods which essentially follows even though we make the two ways of understanding into essential factors. It can't be easy to make a common-set in Shiga teaching when you emphasize national literary value or add personal tastes.

It looks difficult to discuss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e limits focusing on a specific area right now in this situation. That's why I focus on the 'Keyword' of Shiga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For practical and detailed discussion, I have to approach from micro stage such as methods of education, selec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way of appraisal. But the basic direction of this thesis is to arrange a few factors which should be preconditions in the field for Shiga education. That's because we can reflect on the existing Shiga education and also expect to make it a prospect through it.

So, I have started the discussion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ason why I take the matter of getting out of the self-centered frame as the first keyword is that self-centered interpretation that is to understand and to teach the Classical Shiga according to present situations is overheated as

far as the difficulties you face in the field of Shiga education are heavy.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erits and demerits because the spectrum of personal tastes are various and the reactions from students on it are also various. In this thesis, as substantial understanding by accepting those proposals, I have emphasized that the understanding of Korean peculiarity on the concept of 'Classical Shiga' should be treated more definitely in the education field.

Getting out of text-centered frame has been taken as the second keyword of Shiga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because it is closely relevant to practical efficiency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Shiga text is the center in the education fiel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view and proper understanding of 'Text' and also 'Context' for proper interpretation of Classical Shiga is indicating that the aesthetic paradigm between Classical Shiga and modern poets are also different. And therefore, I intended that th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system of texts which varies such, should be the keyword at the practical Shiga education field.

So, I have emphasized that the restoration of 'Context' wa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linguistic aesthetics, that the understanding of 'Contex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sense of values and aesthetics of the era as well.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aesthetic value and emotion on the situation of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Classical Shiga are not bound to only the plane space. After all,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e Classical Shiga means to experience the situation of those times which appa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present. And at that point, the restoration of the situation of works of those times can be made from various angle.

Key Words Classical Shiga education, the self-centered frame, the concept of 'Classical Shiga', text-centered frame, context, aesthetic paradigm

논문투고일 : 2007. 3. 30
심사완료일 : 2007. 4. 20
게재확정일 : 2007. 5. 4